[사진 제공 = 로이터통신 캡처]민진당 소속 라이칭더(賴清德) 대만 총통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가운데 쟁점 법안을 놓고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.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라이칭더 새 정부로서는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.17일(현지시간) 로이터통신과 대만 언론들은 여야 간 대립이 끝내 난투극으로 비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먹질과 발길질, 연단에 올라가 점거를 시도하는 의원의 모습 등 현장 영상과 사진을 보도했다.이같은 모습을 접한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“우리나라인 줄 알았다”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.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 의원들과 소수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.  
  
  
  
 [사진 제공 = 로이터통신 캡처]국회와 입법위원(국회의원)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 ‘5대 입법원(국회) 개혁 법안’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.국민당은 민중당과 공조해 5대 입법원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가 점거를 시도했고, 급기야 이를 저지하는 국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.몸싸움 과정에서 민진당 의원 5명과 국민당 의원 1명 등 최소 6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.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으로 결국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(韓國瑜) 입법원장(국회의장)은 산회를 선포하고 오는 21일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.